대구보호관찰소

○ 매체 : 국제뉴스(2026. 10. 23.)

○ 제목 : 대구준법지원센터, ‘큰 걱정 덜었어요’… 영세농가 돕는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 '큰 걱정 덜었어요'...영세 농가 돕는 사회봉사

영세 농가 대상 농작물 수확 및 폐비닐 수거 지원
농가 주민들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 호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다양한 민생 지원 확대 계획



(대구=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대구시 군위군 의흥면과 삼국유사면, 경산시 하양읍의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가을 수확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직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협 관계자 등이 참여해 농작물 수확과 폐비닐 수거 작업을 도왔다.

일손 지원을 받은 주민 A씨는 수확기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으나 봉사자들이 수확을 돕고 밭 정리까지 해줘 큰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김기환 대구준법지원센터장은 이번 활동이 영세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지역사회 영세 농가와 소외계층을 위한 민생 지원형 사회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대구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